

#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 수준 및 관련요인

신태수<sup>1</sup>, 조영채<sup>2\*</sup>

<sup>1</sup>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2</sup>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및 의학연구소

##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Taek-Soo Shin<sup>1</sup>, Young-Chae Ch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Research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요 약**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53개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314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및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직업전문성인식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에는 연령,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전환의사, 응답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 및 직업전문성인식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관련 특성 변수와 직업전문성인식도가 직무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변수들이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직무만족도에는 직업관련 특성 및 직업전문성인식도 변수들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recorder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The study subjects were 314 medical recorder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working at 42 general hospitals.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using a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ring March 4-April 23, 2013.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gender, age, marital status, monthly salary, BMI, position, aptitude for one's duties, wish for a career transition, and perception of the prospects of the social status of medical recorder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in the future and professional job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suggeste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monthly salary, BMI, position, work satisfaction, wish for a career transition, perception of the prospects of the respondent's social status, and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work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work-related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professional job perception indicate a high correlation with the work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in terms of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of medical recorders and health information technicians and between the work-related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job perception variables in terms of work satisfaction.

**Key Words** : Medical recorder,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General hospital.

\*Corresponding Author : Young-Chae Cho(Chungnam National Univ.)

Tel: +82-11-701-6452 email: choyc@cnu.ac.kr

Received March 3, 2014

Revised March 19, 2014

Accepted July 10, 2014

## 1. 서 론

오늘날 병원은 분업화된 전문적 기능과 합리적인 행정 조직력을 가지고 건강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 구조와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규모 또한 날로 대형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 의료분쟁의 증가,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은 병원 종사자들에게 많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갖는 직종으로 볼 수 있다.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전자의무기록 개발 및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체계 개발에 참여하여, 질병분류 및 의료행위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며, 현재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처방전달체계(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등의 전산 개발로 인해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1].

따라서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병원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여러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의 의미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및 직업 전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을 의미한다[2]. 이 때문에 전문직은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일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직업으로써, 사회적 위세나 소득, 권력 등으로 평가되는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직업의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며, 그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무기록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정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직장의 업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개인이 직무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은 것과의 비교를 나타내는 주개념으로서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 직무나 직무경험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5].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6]. 특히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이직을 하지 않고 현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7], 의뢰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또한 직무만족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9],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활동적인 경향이 있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0].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개원의사[11,12], 간호사[13], 미용사[14], 보육교사[15], 생활체육지도사[16]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몇 편[17,18] 있을 뿐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도를 동일 시점에서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 수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2.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53개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3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33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4.0%),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8명을 제외한 31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조사 방법

조사는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조사대상 각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설문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연구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고, 일부지역은 사담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를 통한 우편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월수입, 신장, 체중 등을 조사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최근 건강검진 등에 의해 측정된 값을 기록토록 하였으며, 비만도(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 [ $BMI(kg/m^2)=\text{체중}(kg)/\text{신장}(m)^2$ ]로 계산하였다. 비만의 구분은 세계보건 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준[19]에 따라  $18.5 kg/m^2$  미만을 「저체중군」,  $18.5 kg/m^2$  이상  $22.9 kg/m^2$  미만을 「정상체중군」,  $23.0 kg/m^2$  이상  $24.9 kg/m^2$  이하를 「과체중군」,  $25.0 kg/m^2$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직위, 근무경력, 업무의 신체적 부담 정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행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음주상태, 흡연상태, 규칙적인 운동여부, 아침식사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여가활동시간,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규칙적 운동 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운동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운동군」으로 구분하였다.

지위 인식정도의 측정은 Pavalko[20]의 전문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기초로 Kim 등[21]이 사용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 범주의 문항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을 조사하였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로 구분하였고, 의무기록사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좋아질 것이다」, 「같을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및 「생각해보지 않았다」로 구분하였다.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는 Hall[22]이 40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Snizek[23]가 25개 문항으로 축약한 전문직업성 측정도구(Hall's Professionalism Scale)를 Kang 등[24]이 우리나라 근무 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조직 준거성;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 조직 및 동료들의 의견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사회적 중요성; 의무기록사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것」, 「자율적 상호통제; 동료 직원들만이 서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적 소명감;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보상이 줄더라도 의무기록사직을 계속하겠다는 느낌」, 「업무 자율성;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등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요인별로 5개 문항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합산한 득점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요인별로 각각 4분위 수(quartile)를 이용하여 네 집단(Q1, Q2, Q3 및 Q4)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0.724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직업적 소명감 영역  $\alpha=0.767$ , 자율적 상호통제 영역  $\alpha=0.712$ , 사회적 중요성 영역  $\alpha=0.745$ , 전문조직준거성 영역  $\alpha=0.708$ , 업무자율성 영역  $\alpha=0.716$ 의 수준이었다.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로는 Slavitt 등[25]이 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Han[2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어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하위영역으로는 업무 자율성(5항목), 업무만족(4항목), 역할보람(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문항을 합산한 득점범위는 13~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0.715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업무자율성 영역  $\alpha=0.714$ , 업무만족 영역  $\alpha=0.767$ , 역할보람 영역  $\alpha=0.692$ 의 수준이었다.

2.3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 WIN(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의 평균점수의 비교는 t-test와 ANOVA로 검정하였다.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한편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이들 독립변수들의 단계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인식도 및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인식도 및 직무만족도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 평균점수는  $79.74 \pm 11.22$ 점(범위: 25~125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43.69 \pm 7.88$ 점(범위: 13~65점)이었다. 직업전문성인식도 평균점수는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 $p=0.002$ ), 월수입이 높을수록( $p=0.000$ ) 유의하게 높았으나, 성, 연령, 교육정도 및 BMI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나( $p=0.005$ ), 그 밖의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및 BMI 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Mean±SD	p-value	Mean±SD	p-value
Sex			0.102		0.876
Male	80(25.5)	77.97±11.26		43.57±8.55	
Female	234(74.5)	80.35±11.17		43.73±7.66	
Age(year)			0.159		0.382
≤29	104(33.1)	79.00±10.29		43.98±7.42	
30-39	138(43.9)	79.14±11.70		43.03±7.88	
40≤	72(22.9)	81.97±11.45		44.54±8.09	
Education			0.057		0.417
Junior college	99(31.5)	78.89±11.23		43.10±7.95	
College	173(55.1)	79.30±11.21		43.71±7.95	
Graduate school	42(13.4)	83.57±10.72		45.02±7.43	
Marital status			0.002		0.379
Married	159(49.4)	81.63±11.61		44.08±8.23	
Unmarried	155(50.6)	77.81±10.50		43.29±7.51	
Monthly income(₩10,000)			0.000		0.005
<200	66(21.0)	76.18±8.02		41.51±6.51	
200~300	188(59.9)	79.47±11.65		43.70±8.10	
300≤	60(19.1)	84.51±11.38		46.06±7.98	
BMI(kg/m <sup>2</sup> )			0.100		0.188
≤18.5	40(12.7)	76.25±6.97		41.75±6.64	
18.5-22.9	210(66.9)	80.38±11.43		43.74±7.93	
23.0-24.9	41(13.1)	81.21±13.16		45.56±8.92	
25.0≤	23( 7.3)	77.43±10.71		43.30±7.02	
Total	314(100.0)	79.74±11.22		43.69±7.88	

### 3.2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직업전문성인식도 평균점수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 3.3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직업전문성인식도 평균점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13) 유의하게 낮았으나 그 밖의 흡주 여부, 흡연여부, 규칙적인 식습관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여가시간 여부,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흡주여부, 흡연여부, 규칙적인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습관여부, 주관적인 수면의 질, 여가시간 여부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4 지위인식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지위인식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직무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직업전문성인식도 평균점수는 현재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p=0.000), 현재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p=0.000), 향후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또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는 현재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p=0.000), 현재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p=0.000),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또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2]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job related factors

Variables	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Mean±SD	p-value	Mean±SD	p-value
Job position			0.000		0.000
Staff	207(65.9)	77.21±9.75		42.25±7.42	
Charge	67(21.3)	82.98±13.35		45.26±8.30	
Head	40(12.7)	87.42±9.71		48.52±7.20	
Job career(year)			0.276		0.998
<1	24(7.6)	77.41±8.86		43.70±7.65	
2-3	85(27.1)	78.68±10.61		43.82±7.55	
4-9	107(34.1)	79.62±12.21		43.65±8.09	
10≤	98(31.2)	81.37±11.06		43.62±8.09	
Physical burden of work			0.511		0.821
Adequate	185(58.9)	80.09±11.27		43.77±7.89	
Hard	129(41.1)	79.24±11.18		43.57±7.90	
Satisfaction in work			0.000		0.000
Satisfaction	205(65.3)	82.95±11.69		46.48±7.25	
Dissatisfaction	109(34.7)	73.72±7.13		38.44±6.17	
Fit to the job			0.000		0.000
Fit	235(74.8)	82.10±11.55		45.52±7.45	
Unfit	79(25.2)	72.74±6.26		38.24±6.50	
Consider quitting the job			0.000		0.000
With	138(43.9)	72.65±6.91		38.87±5.62	
Without	176(56.1)	85.31±10.82		47.47±7.33	
Total	314(100.0)	79.74±11.22		43.69±7.88	

[Table 3]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Mean±SD	p-value	Mean±SD	p-value
Alcohol drinking			0.187		0.266
Yes	206(65.6)	80.35±11.52		44.05±8.25	
No	108(34.4)	78.59±10.58		43.00±7.10	
Smoking			0.439		0.678
Yes	50(15.9)	78.62±12.18		44.12±9.03	
No	264(84.1)	79.96±11.04		43.61±7.66	
Regular exercise			0.013		0.083
Yes	119(37.9)	81.76±13.00		44.68±8.67	
No	195(62.1)	78.51±9.82		43.09±7.31	
Eating breakfast			0.066		0.350
Regularly	155(49.4)	80.92±11.14		44.11±7.98	
Irregularly	159(50.6)	78.59±11.21		43.28±7.78	
Subjective sleep quality			0.546		0.826
Good	193(61.5)	80.05±11.24		43.77±8.02	
Bad	121(38.5)	79.26±11.23		43.57±7.68	
Leisure time			0.454		0.790
With	172(54.8)	80.18±11.18		43.80±7.74	
Without	142(45.2)	79.22±11.30		43.56±8.07	
Subjective health status			0.591		0.547
Healthy	247(78.7)	79.57±10.98		43.83±7.51	
Unhealthy	67(21.3)	80.40±12.13		43.17±9.15	
Total	314(100.0)	79.74±11.22		43.69±7.88	

[Table 4]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atisfaction	
		Mean±SD	p-value	Mean±SD	p-value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0.000		0.000
Low	71(22.6)	72.70±7.22		38.26±6.21	
Middle	217(69.1)	80.21±10.37		44.50±7.33	
High	26(8.3)	95.11±10.67		51.76±6.93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0.000		0.000
Low	63(20.1)	71.71±7.11		38.90±7.02	
Middle	227(72.3)	80.25±10.45		44.12±7.49	
High	24(7.6)	96.04±7.01		52.16±4.62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			0.000		0.000
Better than current status	70(22.3)	87.37±12.41		48.31±7.78	
Same with current status	146(46.5)	79.93±9.26		43.48±7.17	
Worse than current status	80(25.5)	73.56±9.78		40.61±7.52	
No idea	18(5.7)	76.11±9.23		41.11±7.52	
Total	314(100.0)	79.74±11.22		43.69±7.88	

### 3.5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따른 직무만족도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 따른 직무만족도 평균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전문성인식도점수를 4분위 수(Q1, Q2, Q3 및 Q4 집단)로 구분하여 직무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였다[Table 5]. 그 결과 직무만족도점수는 직업전문성인식도 총 평균점수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낮았다(p=0.000). 하위영역별로는 전문조직준거성 점수가 낮은 군일수록(p=0.004), 사회적 중요성 점수가 낮은 군일수록(p=0.000), 자율적 상호통제 점수가 낮은 군

일수록(p=0.000), 직업적 소명감점수가 낮은 군일수록(p=0.000), 업무 자율성점수가 낮은 군일수록(p=0.000) 직무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 3.6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전문성인식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직무만족도 점수

[Table 5]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professional job perception factors

Variables	N(%)	Job satisfaction		F	p-value
		Mean	SD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113.075	0.000
Low(Q1)	98(31.2)	38.32	±6.23		
Middle(Q2)	72(22.9)	40.84	±4.01		
High(Q3)	73(23.2)	44.23	±5.95		
Very high(Q4)	71(22.6)	53.43	±5.09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4.454	0.004
Low(Q1)	100(31.8)	41.54	±7.48		
Middle(Q2)	95(30.3)	43.91	±8.29		
High(Q3)	58(18.5)	44.95	±6.92		
Very high(Q4)	61(19.4)	45.72	±8.13		
Belief in public service				26.772	0.000
Low(Q1)	152(48.4)	40.71	±6.74		
Middle(Q2)	37(11.8)	42.67	±5.82		
High(Q3)	64(20.4)	45.31	±5.85		
Very high(Q4)	61(19.4)	50.03	±9.30		
Belief in self regulation				77.927	0.000
Low(Q1)	148(47.1)	39.27	±5.88		
Middle(Q2)	41(13.1)	42.12	±3.92		
High(Q3)	54(17.2)	45.85	±6.63		
Very high(Q4)	71(22.6)	52.18	±6.60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96.201	0.000
Low(Q1)	100(31.8)	38.21	±5.51		
Middle(Q2)	85(27.1)	40.91	±5.88		
High(Q3)	53(16.9)	46.52	±5.29		
Very high(Q4)	76(24.2)	52.03	±6.00		
A feeling of autonomy				94.204	0.000
Low(Q1)	154(49.0)	39.36	±5.52		
Middle(Q2)	34(10.8)	41.41	±6.70		
High(Q3)	55(17.5)	45.29	±6.94		
Very high(Q4)	71(22.6)	52.94	±4.50		
Total	314(100.0)	43.69	±7.88		

\*: Q1, Q2, Q3, Q4 means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and 4th quartile classified by the quartile score of each variable, respectively.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Job satisfac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0.733	0.000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0.202	0.000
Belief in public service	0.366	0.000
Belief in self regulation	0.637	0.000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0.698	0.000
A work of autonomy	0.690	0.000

는 직업전문성인식도 총 점수( $r=0.733, p<0.000$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업전문성인식도 하위영역별로는 전문조직준거성 점수( $r=0.202, p<0.000$ ), 사회적 중요성 점수( $r=0.366, p<0.000$ ), 자율적 상호통제 점수( $r=0.637, p<0.000$ ), 직업적 소명감점수( $r=0.698, p<0.000$ ) 및 업무 자율성점수( $r=0.690, p<0.000$ ) 모두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3.7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모델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모델 I 은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 BMI가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BMI가 낮을수록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낮았으며 이들은 9.6%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에는 모델 I 에 투입된 변수에 직업관련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및 직업전환의사가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위가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적성이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 직업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낮았으며 모델 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42.5%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III에는 모델II의 투입된 변수에 건강관련행위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없었으며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42.7%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IV에는 모델III의 투입된 변수에 지위인식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기록사의 장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낮았으며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업전문성인식도를 43.2% 설명할 수 있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직업전문성인식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추가됨으로 해서 각각 11.4%, 27.1%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업전문성인식도에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8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5개의 모델에 의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모델 I 은 인구사회학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월수입, BMI가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BMI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들은 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에는 모델 I 에 투입된 변수에 직업관련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직위, 업무에 대한 만족도 및 직업전환 의사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직업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모델 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42.9%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III에는 모델II의 투입된 변수에 건강관련행위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없었으며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43.4%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IV에는 모델III의 투입된 변수에 지위인식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



무기록사 자신의 현재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모델 III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43.6%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V에는 모델 IV에 투입된 변수에 직업전문성인식도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모델 V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61.4% 설명할 수 있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직무만족도는 직업관련 특성 변수와 직업전문성인식도가 추가됨으로 해서 각각 32.8%, 16.7%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만족도에 직업관련 특성과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7]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t	B	t	B	t	B	t
Sex(male/female)	6.16	3.57**	2.69	2.00*	4.97	2.55*	4.75	2.44*
Age(year)	0.42	2.04*	0.49	2.61*	0.47	2.46*	0.47	2.48*
Education (junior/college, graduate)	0.81	0.61	0.35	0.33	0.65	0.60*	0.54	0.50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	3.19	1.99*	1.74	0.31	2.18	1.62	1.87	1.38
Monthly income(₩)	0.05	3.94**	0.02	2.23*	0.02	2.14*	0.02	2.27*
BMI(kg/m <sup>2</sup> )	0.68	2.35*	0.30	1.27	0.26	1.08	0.24	1.00
Job position (staff/head, charge)			5.87	4.93**	5.46	4.46**	5.26	4.32**
Job career(year)			0.15	0.84	0.12	0.64	0.13	0.75
Physical burden of work (adequate/hard)			0.23	0.24	0.38	0.38	0.39	0.39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dissatisfaction)			-1.95	-1.43	-2.26	-1.64	-2.19	-1.59
Fit to the job(fit/unfit)			-3.39	-2.36*	-3.27	-2.25*	-2.65	-1.80
Consider quitting the job (with/without)			9.98	9.20**	9.86	9.06**	9.34	8.43**
Alcohol drinking(no/yes)					1.37	1.27	1.26	1.17
Smoking((no/yes)					2.94	1.51	2.96	1.53
Regular exercise(yes/no)					-0.67	-0.63	-0.91	-0.87
Eating breakfast (regularly/irregularly)					-0.01	-0.01	-0.12	-0.12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bad)					0.12	0.12	0.07	0.07
Leisure time (with/without)					-1.17	-1.14	-1.207	-1.17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unhealthy)					0.63	0.51	0.27	0.22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middle, low/high)							-0.76	-0.62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middle, low/high)							1.25	0.95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worse than /same, better than)							3.00	2.46*
Constant	59.152		73.275		71.226		69.868	
F	6.556**		20.419**		13.174**		11.836**	
R <sup>2</sup> change	0.114**		0.271**		0.011		0.012	
Adjusted R <sup>2</sup>	0.096		0.425		0.427		0.432	

\*: p<0.05 , \*\*: p<0.01

[Table 8]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job satisfaction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B	t	B	t	B	t	B	t	B	t
Sex(male/female)	1.90	1.52	0.65	0.65	0.99	0.72	1.19	0.87	0.68	0.60
Age(year)	-0.36	-2.86*	-0.22	-1.65	-0.21	-1.57	-0.22	-1.68	-0.03	-0.33
Education (junior/college, graduate)	0.39	0.41	0.27	0.36	0.32	0.42	0.19	0.26	0.01	0.02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	-0.64	-0.55	-0.46	-0.50	-0.29	-0.30	-0.32	-0.33	-1.05	-1.34
Monthly income(₩)	0.03	3.76**	0.01	1.99*	0.01	2.02*	0.01	2.14*	0.00	1.03
BMI(kg/m <sup>2</sup> )	0.43	2.08*	0.14	0.88	0.15	0.91	0.13	0.80	0.03	0.28
Job position (staff/head, charge)			4.04	4.87**	3.98	4.65**	3.96	4.65**	1.88	2.59*
Job career(year)			-0.11	-0.87	-0.12	-0.96	-0.10	-0.83	-0.16	-1.52
Physical burden of work (adequate/hard)			0.39	0.57	0.44	0.62	0.48	0.68	0.32	0.55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dissatisfaction)			-4.12	-4.34**	-4.29	-4.44**	-4.27	-4.44**	-3.40	-4.26**
Fit to the job(fit/unfit)			-1.72	-1.72	-1.64	-1.61	-1.36	-1.33	-0.31	-0.37
Consider quitting the job (with/without)			6.39	8.44**	6.36	8.34**	6.46	8.34**	2.77	3.87**
Alcohol drinking(no/yes)					0.22	0.29	0.33	0.43	0.17	0.27
Smoking(no/yes)					2.31	1.70	2.29	1.70	1.12	1.00
Regular exercise(yes/no)					0.06	0.08	0.14	0.19	0.21	0.35
Eating breakfast (regularly/irregularly)					0.12	0.16	0.16	0.22	0.21	0.35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bad)					0.09	0.12	0.05	0.07	0.08	0.13
Leisure time(with/without)					-0.56	-0.78	-0.43	-0.59	-0.05	-0.0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unhealthy)					-0.40	-0.47	-0.64	-0.74	-0.74	-1.04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middle, low/high)							-2.26	-2.62**	-1.96	-2.74**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middle, low/high)							1.26	1.37	0.76	1.00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worse than/same, better than)							-0.04	-0.05	-1.23	-1.73
Professional job perception									0.39	11.642**
Constant	35.303		42.108		40.008		40.772		13.172	
F	3.321**		21.033**		13.355**		12.001**		22.679**	
R <sup>2</sup> change	0.061**		0.328**		0.007		0.012		0.167**	
Adjusted R <sup>2</sup>	0.043		0.429		0.434		0.436		0.614	

\*: p<0.05 , \*\*: p<0.01

#### 4.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로써 직업전문성 인식도 측정은 Snizek[23]가 축약한 Hall's Professionalism Scale을, 직무만족도 측정은 Slavitt 등[25]의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들을 사용하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α=0.724 이었고, 직무만족도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α =0.715로 모두 0.7이상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는 기혼 군보다 미혼군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ang[15]의 연구에서도 학력, 연령 및 경력이 높아질수록, 보수가 많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하였고,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14]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낮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 환경이 좋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도가 높아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인식도는 응답자 본인 및 의무기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미래의 지위전망이 낮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Jin 등[11]은 개원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Shin 등[27]은 산업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인 비율보다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14]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앞으로의 지위전망에 대해 스스로 낮게 인식할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Kim 등[16]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수입이 많은 집단에서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Kang[15]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보수,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Min[28]은 의무기록사 만족도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Oh[18]은 의무기록사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Cho[14]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군보다 기혼군에서,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Park[13]과 Kim[29]의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군, 근무경력이 길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업무에 만족한다는 군, 직업에 대한 적

성이 맞다는 군, 직업전환의사가 없다는 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장인들의 직무만족도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고,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의무기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응답한 군일수록, 향후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Park[13]의 연구에서도 본인 및 간호장교에 대한 지위인식이 높을수록, 미래의 지위전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o[14]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미용사들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생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미용사들의 향후 지위전망에 대해서도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업무 만족도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직업전문성인식도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업전문성 하위영역 별에서도 전문조직준거성이 낮은 군일수록, 사회적 중요성이 낮은 군일수록, 자율적 상호통제가 낮은 군일수록, 직업적 소명감이 낮은 군일수록, 업무 자율성이 낮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Kang 등[24]은 전공의들의 직업만족도는 전문직으로서의 자기인식이 뚜렷할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하였고, Kim 등[16]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문성인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도 높다고 하였으며, Son[30]은 MICE산업 종사자의 낮은 직업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전문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31,32]와 직업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간호사 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33-35].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전

문성 인식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무만족도는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전문성 인식도 하위영역에서도 전문조직원거성, 사회적 중요성, 자율적 상호통제, 직업적 소명감, 및 업무 자율성 모두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Jin 등[11]과 Kim 등[12]도 개원의사들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인식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Choi 등[17]도 의무기록사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13]은 간호장교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14]의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전문성인식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지위인식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전문성인식도에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및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3.2%이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은 각각 11.4%, 27.1%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업전문성인식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Cho[14]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무경력, 성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무만족도 및 학력이 직업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지적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지위인식정도 및 직업전문성 인식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에는 연령,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전환의사, 응답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 및 직업전문성인식도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1.4%이었다. 특히 직업관련 특성 변수와 직업전문성인식도는 각각 32.8%, 16.7%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무만족도와 높은 관련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Park[13]은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관련 특성과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직무만족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지역 53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의무기록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각 독립변수들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 여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독립변수가 직무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무기록사들에 대한 직업전문성인식도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단변량 분석에 의존한 연구를 수행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직업관련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 수준에 대한 위험비를 구하여 관련성을 비교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찾아내어 다방면으로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

- [1] Yun SH. A study on role charge of medical recorders in the environment of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 Friedson E.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New York, Atherton Press Inc. 71-84, 1970.
- [3] Han YH, Kang KH, Park KO, Sohn IS.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Clinical Nursing Research, 16(2):17-31, 2010.
- [4] Cheong KK, Kim YK, Moon CJ, Cho BH, Kim JS. Sociology of Public Health. SNU Press, p209-283, 1995.

- [5] Lee HJ.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4.
- [6] Oh IS. A Study of the duty-related satisfaction level of the administrative staffs in private universit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7] Ellenbecker C.H, Porell FW, Samia L, Byleckie, JJ, Milburn M. Predictors of home healthcare nurse retention. *J Nurs Scholarsh.* 40(2):151-60, 2008.  
DOI: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8.00220.x>
- [8] Aiken LH, Clarke SP, Sloan DM, Sochalski J, Silber JH. 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mortality, nurse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JAMA.* Oct 23-30;288(16):1987-93, 2002.
- [9] Yu YJ, Hung SW, Wui YK, Tsai LC, Wang H.M, Lin CJ.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hospital nurses in the Yunlin-Chiayi area. *Hu Li Za Zhi* Apr;55(2):29-38, 2008.
- [10] Park SA, Yun SN. Measurement of job satisfaction of nurses and health workers in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3):316-324, 1991.
- [11] Jin DG, Kam S, Kang YS, Cho YK, et al.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octors practicing in local Daegu city. *Korea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36(2):153-162, 2003.
- [12] Kim JY, Kam S, Kang YS, et al.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estern doctor and oriental doctors practicing at local clinic.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37(1):44-50, 2004.
- [13] Park AS, Cho YC.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on job satisfaction in nursing offic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0):4502-4512,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0.4502>
- [14] Cho SM.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airdressers practicing in beautician shop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5.
- [15] Kang RH. A study of the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5(1):71-88, 2006.
- [16] Kim OT, Lee SH. Relations of professionalism awareness to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instructors in sport for al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6):473-483, 2010.
- [17] Choei EM, Kim YH.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dical record technician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8(3):72-91, 2003.
- [18] Oh JY.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medical record technicia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9] WHO.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Sydney,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s Australia Pty Ltd, 2000.
- [20] Pavalko RM.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 F.E. Peacock Publishers Inc, 1971.
- [21] Kim HS, Kim MS. Present condition and task of specialized job qualification syste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3.
- [22] Hall RH.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 Sociol Rev.* 33(1):92-104, 1968.  
DOI: <http://dx.doi.org/10.2307/2092242>
- [23] Snizek WE.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 Socio Review*, 37(1):109-157, 1972.  
DOI: <http://dx.doi.org/10.2307/2093498>
- [24] Kang YS, Kam S, Yeh MH. Interns' and residents'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effect to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30(1):209-228, 1997.
- [25] Slavitt DB, Stamps PL, Piedmont EB, Haase AMB. Nurse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 Res.* Mar-Apr;27(2):114-20, 1978.
- [26] Han YJ. A study on job stress, treatment method and job contentment. -with workers in university hospital in the cente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7] Shin SH, Lee JT, Kim M, Kim JH, et al. Medical professionalism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physician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3(2):203-212, 2011.
- [28] Min BO.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medical recorder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5.
- [29] Kim EH, Cho YC. Job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nursing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7):3112-3122,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7.3112>
- [30] Son JM. A study on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professionalism among MICE employees. *Korea Convention Society* 12(2):47-65, 2012.
- [31] Sung KW. A comparative study on main role,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health nurse and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 Academy of Nursing 32(2):219-230, 2002.
- [32] Hampton GM, Hampton DL.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cated Nurse-Midwives. J Nurs Res. 57(9):1042-1053, 2004.
- [33] Ko, SH, Chnug, B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335-344, 2004.
- [34] Lee SY, Choi JA, Lee JH. A study on military nursing officers' nursing professional value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 Military Nursing Research. Mar;26(1):104-122. 2008.
- [35]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 Adv Nurs. Jan;61(1):62-70, 2008. Epub Nov 22, 2007.

---

**신 택 수(Taek-Soo Shin)**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4년 3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과정)
- 1993년 3월 ~ 현재 : 대전 선병원 원무차장

<관심분야>

의무행정, 보건 및 의료정보관리

---

**조 영 채(Young-Chae Cho)**

[정회원]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199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관심분야>

환경 및 산업보건, 건강관리